

세계적 푸르른 양진도와 함께...

HAMPYEONG DYNASTY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성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 위성미 '첫 승 갈증' 풀다

## 에비앙마스터스 2R 선두 도약 박세리 4위·김미현 5위 '톱 5'

'천만달러의 소녀' 위성미(17·나이키골프)가 고대하던 첫 우승을 향해 힘찬 시동을 걸었다.

위성미는 28일(한국시간) 프랑스 에비앙르뱅의 에비앙마스터스골프장(파72·6천268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에비앙마스터스 2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의 데일리베스트샷을 뽑아냈다.

중간합계 9언더파 135타로 카리 웹(호주),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와 공

동 선두에 오른 위성미는 드디어 LPGA 투어 대회 우승의 기회를 만들어냈다.

1라운드 때 쇼트게임과 퍼팅이 엇박자를 내면서 경기가 순조롭게 풀리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이날 위성미는 장타력과 정교한 아이언샷, 그리고 퍼팅 등 3박자가 비교적 잘 맞아떨어졌다.

몇차례 버디 퍼팅이 비껴간 것이 없었지만 샷이 단 1개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 눈에 띄었다.

부활에 성공한 박세리(29·CJ)는 소속사 CJ가 긴급 공수한 헛반을 비롯한 한국 음식을 먹은 덕인지 4언더파 68타를 때려 공동선두 그룹에 1타 뒤진 4위(8언더파 136타)로 올라섰다.

'첫날 공동선두에 나섰던 '슈퍼 팡공' 김미현(29·KTF)은 1타 밖에 즐이지 못해 중간합계 7언더파 137타로 순위는 5위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플라 크리머(미국)와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그리고 로리 케인(캐나다)이 중간합계 6언더파 138타로 공동6위에 포진. 우승컵의 향방은 아직 운골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위성미가 28일 프랑스 에비앙르뱅의 에비앙마스터스골프장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에비앙마스터스 2라운드에서 아이언샷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위성미 "우즈 처럼..."

## 드라이버보다 우드·아이언 사용 1위로

2번 아이언 티샷으로 브리티시오픈을 제패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공략법을 배웠을 까.

에비앙마스터스 2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쳐 중간합계 9언더파 135타로 1타차 공동 선두로 치고

올라온 위성미는 36홀을 치르는 동안 드라이버를 몇 차례 꺼내들지 않았다.

올해로 세 번째 이 대회에 출전한 미셸 위가 드라이버 티샷을 할 만큼 코스가 길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파악한 데다 장타력을 뽑았던 무리수는 배

제하고 그만큼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2라운드를 마친 뒤 공식 인터뷰에서 "몇 차례만 드라이버로 티샷을 하고 3번 우드를 사용했다. 폭발적인 티샷을 날려야 할 코스가 아니다"고 말했다.

"드라이버로 티샷을 할 것을 해아리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1,2라운드 합해서 드라이버를 친 횟수가 3~4차례 안팎일 것"이라고 질문에 답했다.

위성미는 "지금까지 일단 샷감이 너무 좋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LPGA 투어대회 출전 31번째인 이번 대회에서 우승 예감을 비치기도 했다.

# 최경주 US뱅크챔피언십 1R 13위

최경주(36·나이키골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US뱅크챔피언십 첫날 공동 13위에 올랐다.

최경주는 28일(한국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 브라운디언파크골프장(파70·6천739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버디 6개와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로 3언더파 67타의 성적을 적어냈다.

기상 악화로 상당수 선수들이 출발도 하지 못하는 등 1라운드를 마치지 못하고 다음 날로 연기된 가운데 버디만 9개를 속아낸 노장 코리 페이빈(미국)이 9언더파 61타로 코스레코드를 세우면서 3타차 단독 선두에 나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베어벡호' 젊은 피 15명 수혈 한국축구 세대교체

## 8월 아시안컵 대만 원정

쏟아지고 새로워진 '1기 베어벡호' 36명의 태극전사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김 베어벡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28일 오전 서울신문로 축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오는 8월 16일 예정된 아시안컵 대만 원정에 나설 36명의 '베어벡호' 1기 태극전사 명단을 발표했다.

1기 베어벡호는 31명의 국내파 K-리그 선수를 주축으로 3명의 J-리그, 2명의 러시아 리그 선수로 구성됐다.

이번 명단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36명의 선수 중 25명이 25세 이하 선수들로 구성되면서 한층 젊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대표팀 출신의 신예 공격수 신영록(수

원)과 FC서울 2군 소속의 김동석은 처음으로 성인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차지했다.

더불어 조병국(성남)과 조용형(제주) 등 젊은 수비수와 함께 미드필더 이관우(수원) 등 15명이 베어벡 감독의 선택을 받았다.

하지만 대표팀 주장을 맡았던 이운재(수원)가 최근 부상으로 3주 진단을 받으면서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됐다.

◇아시안컵 대비 대표팀 명단

▲GK = 정성용(포항) 김용대(성남) 김영광(전남) 성경일(전북) ▲DF = 조병국(성남) 조성환(포항) 조용형(제주) 정인환(전북) 김진규(이와타) 김영철(성남) 이강진(부산) 조원희(수원) 장학영(성남) 오범석(포항) 김동진(제니트) 송종국(수원) 양상민(전남) ▲MF = 백지훈(서울) 김두현(성남) 김동석(서



28일 오전 축구협회에서 열린 아시안컵 예선 소집명단 발표 회견에서 김 베어벡 감독이 선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 김정우(나고야) 김남일(수원) 김상식(성남) 권집(전북) 이윤용(서울) 이호(제니트) 이종민(울산) 이관우(수원) ▲FW = 안정환(뒤스부르크) 조재진(시미즈) 최성국(울산) 정조국(서울) 이천수(울산) 박주영(서울) 서동현(수원) 신영록(수원)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투르 드 프랑스 '챔피언' 랜디스

## 금지약물 복용 타이틀 박탈 위기

투르 드 프랑스 '챔피언' 플로리드 랜디스(30·미국)가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자칫 타이틀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랜스 암스트롱에 이어 미국에 일곱 번째 우승의 영광을 안긴 랜디스는 대회조직위원회가 실시한 금지약물 복용검사서에서 호르몬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이 다량 검출됐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그가 소속한 스위스 사이클클럽 포낙이 27일(이하 한국시간) 자체 웹사이트에서 밝혔다.



29일(토)  
▲메이저리그<샌디에이고-콜로라도>(09:55·Xports)  
▲삼성 하우젠컵(FC 서울-전남 드래곤즈)(19:00·KBS SKY SPORTS)  
▲프로야구<롯데-LG>(18:00·SBS스포츠), <삼성-현대>(18:30·MBC ESPN), <한화-두산>(21:00·KBS SKY SPORTS)

30일(일)  
▲PGA 투어 U.S.뱅크 챔피언십 3R(05:00·SBS스포츠)  
▲메이저리그<디트로이트-미네소타>(08:00·Xports)  
▲프로축구<광주-부산>(13:50·KBC)  
▲아시안컵 여자축구 3·4위전(11:50·Xports), 결승전(14:50·Xports)  
▲AFC 여자 아시안컵 결승(14:50·SBS스포츠)  
▲K-1 리벤지 2006 3차투(15:00·MBC ESPN)  
▲프로야구<롯데-LG>(16:50·SBS스포츠), <한화-두산>(16:30·KBS SKY SPORTS)

31일(월)  
▲월드리그 국제 남자배구대회 2차전<대한민국-이집트>(02:00·KBS SKY SPORTS)

# "한국적 시스템 찾는데 주력 생각하는 선수 육성하겠다"

## 베어벡 감독 인터뷰

김 베어벡 축구대표팀 감독이 8월16일 대만에서 열린 2007 아시안컵 예선 대만전을 앞두고 대표팀 운영 구상을 밝혔다.

베어벡 감독은 28일 아시안컵 예선 대만전을 앞두고 36명의 예비 명단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대표팀 운영은 전체적인 선수 선발의 폭을 넓게 가져가면서 한국적 시스템을 찾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베어벡 감독은 우선 "우리는 아직도 유럽과 아시아 수준 격차를 충분히 줄이지 못했다. 지난 월드컵

을 교훈삼아 다음 월드컵을 준비해 나가기 위해 어떤 청사진을 만들어야 할지 코칭스태프와 대한축구협회가 심사숙고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일단 한국 선수들에게 가장 적합한 '한국적 시스템'을 찾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

이러면서 "이기는 경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체적인 선수 선발의 폭을 크게 넓게 하겠다"면서 "선수들로서는 그만큼 경쟁이 더 치

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어벡 감독은 선수 선발 기준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베어벡은 "코칭스태프가 눈여겨보고 중점적으로 찾을 선수는 토탈 축구를 하는 선수다. 모든 선수들이 수비는 물론 공격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도 많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능력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 "현재 축구에서는 기술도 갖추고 축구에 대한 지능을 갖춘 선수가 필요하다. 국제 무대에서는 투지만으로는 힘들다는 것을 직접 봤다. 생각하는 선수가 돼야 한다"고 선수들에게 창의적인 플레이를 요구했다.